

특별기고



고병균

수필가·전 초등학교 교장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한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만난 분들이다. 선생님은 성만 밝히고, 학생은 가명을 사용한다.

먼저 소개하는 정 선생님은 내 나이가 서른을 막 넘었을 때 총각 선생님이로 만난 여자 선생님이다. 5학년을 담임했는데, 나는 5반, 정 선생님은 6반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교실만 교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몹시 서툴렀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달랐다. 학생을 애저나 잘 다루는지 6반 아이들은 선생님 없이도 스스로 공부했다. 교

과서는 물론 전과나 수업장의 내용까지 쪽지로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외었다. 그때에는 월말평가를 실시했었는데 6반 학생들의 점수를 따라 갈 수 없었다. 적어도 5점 이상의 차이가 났다. 그것이 몹시 부끄러워 나름대로 힘써 노력했으나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뜨거운 열정·따뜻한 마음

이랬던 정 선생님이 수 년 전에 정년으로 퇴직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학생을 교육한 선생님,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 교육과 기본 교육에 충실했던 선생님, 교육자적 자세가 너무나 진지하여 아름답게 보였던 선생님,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생의 푸른 꿈을 심어준 선생님, 퇴직할 때까지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아니한 정 선생님은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신 선생님은 교장으로 근무할 때 만난 남자 선생님이다.

2006년 5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운동장에서 아들이 깔리는데 학생 하나가 교문 주변에서 오락가락 한다. '누구일까요?' 가까이 가보았더니 5학년 남자 학생이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세한(가명)아, 왜 집에 안 갔어?" 무어라고 대답을 하는 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때 방에서 선생님이 나오더니 "네,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

세한이는 2학년 여동생과 함께 흠여머니 슬하에서 생활한다. 여동생이 무릎에서 다쳐 입원했는데, 그 어머니는 병원에서만 생활하고, 아들에게는 도대체 관심이 없다. 조금 무책임하다. 부지불식간에 고아(?)가 된 세한이는 이집 저집 떠돌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다.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담임교사 신 선생님이 세한이를 불러 밥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면서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일주일여 넘었다고 말한다.

신 선생님은 부부교사로 근무지가 서로 달라 근무중에는 떨어져서 생활한다. 신 선생님은 옛날 숙직실이었던 방에서 자취를 하는데, 자취하는 살림살이가 방의 한쪽에 놓여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작은 책상도 하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없다. 이

런 상황임에도 자기의 제자가 위기에 처한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를 불러 돌보고 있다. 선생님의 제자 사랑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존경스럽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학교는 왜 존재할까?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설혹 세한이처럼 불우한 환경의 학생이라도 그를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길러내야 한다. 이것이 학교의 책무이고, 선생님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두 분 선생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실력을 기르는 일에는 정 선생님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일에는 신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하는, 좋은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2019학년도에는 단 하나의 학생이라도 장차 '나라와 고장의 발전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선생님, 단 하나의 학급이라도 그곳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하나 둘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사설

조합장선거 불·탈법 근본대책 있어야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또다시 불·탈법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치러진 1회 선거가 최악의 금품선거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제2회 선거마저 불법이 난무한다면 조합원들의 눈앞에 닥쳐오는 것은 7일 현재 광주전남 시·도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비용이 25건으로 이중 고발이 7건, 수사의뢰가 1건, 경고가 17건에 달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장에선 정성적 선거운동 보단 비정성적(?)적 선거운동이 외려 일상적이라는 답답한 노릇이다. 대부분의 적발 사례는 금품제공이다.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통도 크게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광주시 선관위에 적발된 광산구 모 조합장 후보 예정자는 5만원권 10장씩을 받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약속

하는 척 건네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그런가 하면 설날을 전후해 상품권을 돌리거나 선물을 살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과거 자유당 시절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능가하는 불·탈법 행위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단속은 한계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불·탈법은 갈수록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비정성적으로 치러지는 데는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유권자가 빚어낸 총체적 비극이라는 얘기가 많다. 따라서 이같은 불·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문화계 혁신인사 1호로 끝인가

기대를 모았던 광주시 첫 개방형 문화예술회관에 '정치인' 출신 성현 출사가 임명되며 '보은인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혁신과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던 광주시에 기대를 걸었지만 혁신인사는 1호인 시립미술관장으로 끝이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문화예술계 보은인사 논란은 앞서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이모숙씨가 선임되면서부터 제기됐다. 조직관리 경험이 거의 없는 이 씨가 재단의 살림을 담당할 사무처장으로는 자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신임회장 또한 후보자의 문화분야 경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선임이 연기됐다.

무엇보다 개관 28년 만에 첫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며 문화예술계 전문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문화예술회관장에 '캠프 인사'가 임명되

자 지역민들은 유감을 쏟아내고 있다. 성 관장은 문화예술 전문가라기 보다는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다. 지역 공연예술 저변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민선 7기 광주시 문화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지 일주일만에 단행한 인사는 문화수도 의지보다는 보은의 의지만 강해보인다. 전문성·리더십·가치관을 고려한 인사와 무관하기만 하다. 이 시장이 인사를 단행하기 앞서 조언을 듣는지, 듣는다면 누구에게 듣는지도 궁금하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신설했던 것은 강력한 문화혁신 의지였을까. 아니면 관련 책임들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문화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전문성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우선돼야 한다.

기고



이재진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아침에 눈을 뜨고 불을 밝히고 세안하고 배달된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일에서부터 출근하고 근무 뒤 퇴근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두 다 법과 관련된 생활의 연속이다. 심지어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적사고(legal mind)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이용해 음악,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단순 공유 뿐 아니라 심지어 메일을 사용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MP3파일이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다. 어떤 이들은 토렌트나 소위 'ㅇㅇ박스, ㅇㅇ디스크'로 대표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짜 또

는 소액으로 영화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상화 되어버린 온라인 생활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대답은 너무 간단하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무심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엄청난 벌의 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얼마 전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면서 제작한 전단지 에 예쁜 헤어스타일을 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정면 사진이 아니라 측면 사진을 사용한 거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무심결에 퍼블리시 티권(초상사용권)이라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다.

최근 이슈화됐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자. tvN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 (이하 '알쓸신잡3') 사진도용 과 우리 동료 '상어가족' 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먼저 '알쓸신잡3'의 경우를 보면, 몇 달 전 방송에서 프랑스 파리 시내의 가장 큰 정원 묘지 '페르라체즈'를 설명한 부분에 어느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사건이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제작진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작자에게 사과하였다. 하지

'저작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만 이 사건이 더욱 질타를 받은 이유는 '알쓸신잡3'의 나영석PD 또한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의 포맷을 무단 도용한 중국 매체에 대해 "정품을 구매해주지 않겠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던 나PD가 속해있었던 사건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다음으로 동료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슈화되고 있다. '상어가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튜브 조회 수 22억 뷰, 2주 연속 미국 빌보드차트 30위권 진입이라는 기업을 토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작가나 작곡가가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곡 '베이비 샤크'와 흡사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스타트업 기업은 북미의 오래된 전래 동요를 새롭게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 곡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대 음악 표절 소송들처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저작권 문제는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한 기본개념, 요건, 침해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온라인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헷갈릴 수가 없다. 저작권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필자가 지난 1월 일본 연수기간 때 저작권 교육의 체계와 상태를 조사 분석해 본 적이 있다. 한국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부끄러움이 솟는 속내를 감추기가 무척 힘들었다. 일본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저작권 교과서와 각종 학습도구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교육자를 위한 저작권 학습 지도 요령과 국제적 과제에서의 대응까지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작년 5월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많은 자료로 머신러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광범위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 우리의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생각했다. 차체에 한류에 편승해서 방송저차량 등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기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저작권법이 규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한다. 향후 분쟁가능성이나 부당한 침해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한 관련법을 재정비해줄기 기대해 본다.

특지광장

올겨울 지구온난화 여파로 전반적인 겨울기온은 크게 올라갔지만, 간간이 찾아오는 일시적인 한파로 유독 기온 변동이 심한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이따라 발생하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범은 '블랙아이스(Black Ice)'이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코팅된 것처럼 얇은 얼음막

'블랙아이스' 미리 알고 대비하자

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한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엉켜 스며든 뒤 겉에 얼어붙어 검은 색을 띠기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블랙아이스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평소보다 감속주행을 하도록 한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얼어붙은 길에서 급조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스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제동을 할 때에는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도록 한다. 셋째,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공기압은 타이어 제조사 권장 공기압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만약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스티어링이 제동되지 않아 제동력이 더 떨어지고 중점을 잃고 도는 스펀현상이 생기기 쉽다.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빛가람 파출소 이준우

지역 현안 해결에 민관 역량 결집해야

기지수첩

민선 7기 광주시정의 핵심 현안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며 큰 산을 넘었다. 군 공항 이전과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 포기 무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은 답보상태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일자리 성사시진 동력으로서 현안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무산했다. 호반 측은 사업 포기 의사와 함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호반 측은 공공성이 강화돼 사업성이 낮고 정점이 된 레지던스 호텔 건립 계획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 역시 이전 예정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해 후보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환경영향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광주시가 이전사업 예정 후보지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커질 것



황애란  
정기부 차장

당사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 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담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영향분석용역'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시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실제로 설득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안 해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특혜시비와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역시 이전 예정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지난해 후보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환경영향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광주시가 이전사업 예정 후보지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커질 것

광주시는 후보지 실태조사, 이해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전남매일) and Jeonnam University (전남대학교). Includes phone numbers for editorial, circulation, and other departments.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